

II. 産業 診斷

1. 主要 産業 動向

■ 주요 산업 동향

- 6월중 산업 활동은 수출에 의하여 주도됨. 주요 산업의 내수는 계절적 요인까지 겹쳐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의 부문에서 부진한 모습을 띠었음
- 수출 부문은 물량 확대 공급, 적극적인 해외 판매 전략, 해외 수요 호조 등으로 인하여 반도체, 자동차, 철강의 판매류 등에서 큰 폭으로 증가

■ 주요 산업 7월 전망

- 7월중에도 수출 증가세는 계속될 전망. 특히 반도체, 철강, 자동차, 석유화학 등에서 수출 물량 증가는 뚜렷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에 내수는 계절적 비수기, 관련 산업의 침체 등으로 부진을 지속할 전망

■ 산업별 동향

(1) 석유화학

○ 동향

- 6월중 석유화학 제품의 내수는 소폭 증가했으며, 수출은 수출 가격 급락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임. 이는 5월의 내수 부진, 개도국 수요 회복에 따른 높은 수출 증가와는 반대되는 패턴임

○ 전망

- 7월은 주요 공장의 정기 보수 완료로 출하 여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 셀사의 공장 폭발 사고로 수출이 크게 증가할 전망

(2) 철강

○ 동향

- 6월중 조강류는 비수기를 맞아 내수 감소세를 보이고 판매류는 수출 증가가 지속됨. 이는 수출은 호조, 내수는 부진한 5월 상황과 유사함

○ 전망

- 7월 조강류 내수는 전반적인 판매 감소가 예상되며, 판매류는 수출 호조의 지속과 함께 수요 산업의 수출 경기 회복으로 내수 판매도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3) 반도체

○ 동향

- 6월에도 반도체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계절적으로 비수기에 속해 16M DRAM 가격은 하락하고 있음. 한·일 업체간 64M DRAM 시장 선점을 위한 양산 경쟁이 시작되었음

○ 전망

-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가격차 축소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업체들이 휴가기간 동안 추가 감산을 계획하고 있어 7-8달리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보임

(4) 자동차

○ 동향

- 6월중 자동차 내수는 업체들의 무이자 할부 판매 등 적극적인 마케팅에도 불구하고 수요 회복 부진으로 감소세를 보였음. 수출은 내수 부진 극복을 위한 업체들의 적극적인 수출 전략과 신차 투입으로 증가하여 생산 확대를 주도함

○ 전망

- 7월중 자동차 내수는 중고차 매입 조건부 신차 판매 등 새로운 판매 방식 도입으로 다소 회복이 기대되나 여전히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를 보일 전망. 수출은 전월에 이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5) 조선

○ 동향

- 6월중 수주는 엔화 강세와 탱커를 중심으로한 발주 물량 증가로 297.9% 증가했고, 생산은 선박 인도 물량 감소로 지난 5월에 이어 감소세를 보임

○ 전망

- 7월중 수주는 그 증가폭이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 생산은 선박 인도 시점 도래로 증가세 전망

(6) 국내 건설

○ 동향

- 5월중에는 공공, 민간 부문 부진으로 11.8% 증가에 그쳤으나 6월에는 환경 시설 발주 증가, 민간 분양가 자율화 등으로 25% 이상 증가세를 보임

○ 전망

- 7월중에는 조기 발주 물량 소진으로 공공 부문은 증가율이 낮으나 경기 회복 조짐, 수도권 이외 지역의 분양가 자율화로 민간 부문 활기 예상

(1) 석유화학

■ 동향

생산 능력 증
대와 아시아
지역 수요 회
복으로 수출
물량이 급증함

- 5월중 석유화학 제품 출하는 정기보수에 따른 공급불량 축소로 전월에 비해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1.3% 증가세를 보였음
 - 정기보수로 공장 가동율이 저하되었으나 최근의 생산 설비 신·증설로 인하여 생산 능력은 전년 동월에 비해 크게 증가
 - 수출은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개발도상국들의 수요 회복에 따라 전년 동월 대비 53.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내수용 출하는 생산 감소로 출하 여력이 4월보다는 다소 줄어든 가운데 합성원료를 중심으로 일부 제품이 수요 호조를 보였음
- 6월중 유화제품 출하는 5월에 이은 주요 공장의 정기보수와 수출 가격 급락으로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임
 - 특히 수출은 공급과잉을 우려한 해외 바이어들의 구매심리 위축으로 합성수지 가격이 내림세로 돌아서면서 금액 기준으로 대폭 감소함

■ 7월 전망

국내 공장의
정기보수 완료
로 내수 및 수
출 물량이 크
게 증가할 전
망

- 7월에는 주요 공장의 정기보수 완료로 출하여력이 증가할 전망
 - 업체들의 정기 설비 개보수가 끝나 공급 물량이 크게 증가할 전망
 - 미국 쉘사의 폭발 사고로 인하여 바이어들의 구매심리가 촉발돼 수출 경기가 다시 회복될 조짐
 - 6월부터 내림세를 보인 합성수지 가격은 미국 쉘사의 폭발 사고로 주춤해지면서 오히려 상승세로 반전할 것으로 기대됨

<1997년 5월 석유화학 산업 동향>

	5월		1-5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생산(1,000 톤)	836	13.9	4,734	13.5
출하(1,000 톤)	904	21.3	4,679	17.5
수출	315	53.2	1,678	24.7
내수	589	9.1	3,001	13.9

자료: 석유화학공업협회

주: 3대 유도품 기준,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정오영)

(2) 철강

■ 동향

철강 내수는 건설 업체 부도, 경기 부진 등으로 정체 가 지속, 수출은 해외 경기 호조로 증가세 유지

- 5월중 조강류는 건설업체 부도와 날씨의 영향 등으로 예상보다 판매 감소. 판재류는 수출은 호조, 수요 산업 부진으로 내수는 정체
 - 철근의 5월 판매량은 전월비 11.4% 감소하고 재고도 27만톤으로 증가함. H형강은 토목공사 마무리와 철구조용 수요 증가에 힘입어 5월까지 판매가 전년대비 34.1% 증가한 107만톤을 기록함
 - 열연강판은 5월 누계 판매가 452만6천톤으로 전년비 8.6% 늘었으나 생산은 4.1% 증가한 437만9천톤에 그쳐 공급 부족 지속. 후판은 수출 물량 확대와 생산, 수입 감소로 구독난 가중. 냉연강판 내수는 5월까지 151만3천톤으로 1.2% 증가세로 반전되고, 수출은 20.4%로 호조
- 6월중 조강류 내수는 5월에 이어 감소세를 보이고 판재류 수출은 해외 시장 호조로 계속 증가함
 - 조강류는 6월 중순을 넘어서면서 계절적 비수기를 맞아 수요가 감소함. 다만 H형강은 철구조용 수요 호조로 5월과 비슷한 실적을 보임
 - 열연강판은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어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과 수입 관세 인하 요구가 있음. 후판도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있으나 영세수요자의 주문 중단과 건설용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음. 냉연강판은 자동차용 수요산업 경기가 부진하나 수출은 증가 지속함

■ 7월 전망

조강류는 본격적 비수기로 내수가 감소하고 판재류는 수출 호조와 함께 내수도 다소 회복

- 7월 조강류 내수는 전반적인 판매 감소, 판재류는 수출 호조의 지속과 함께 수요 산업의 경기 회복으로 내수도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 철근은 본격적 비수기가 시작되면서 수요 감소가 예상되고 H형강도 기초공사 마무리, 건축허가면적 감소의 영향으로 판매 감소의 지속 예상
 - 열연강판은 공급 부족이 지속되고, 후판은 SOC 관련 정부 발

주 감소로 소비가 주춤함. 냉연제품은 수출 지속과 함께 수요 산업의 수출, 생산 증대로 판매가 다소 늘어날 것임

<1997년 5월 철강산업 동향>

(단위: 1,000 톤, %)

			5 월				1~5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H형강	판매		231		2.7		1070		34.1	
철근	판매		943		11.4		4780		13.1	
열연강판	내수	수출	665	230	0.9	-7.6	3445	1081	8.5	9.0
	후판	내수	276	39	5.7	-	1316	202	-3.4	5.2
냉연강판	내수	수출	322	209	7.8	4.8	1513	1026	1.2	20.4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박병철)

(3) 반도체

■ 동향

비수기에 접어들어 16M 가격 하락세

- 6월중 반도체 수출은 16.3억 달러로서 전년동월비 27.3% 증가하였음
 - 5월에 이어 반도체 수출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음
 - 상반기 평가를 위한 업체의 수출 물량 확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현재 주력 제품인 16M DRAM의 가격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올해 3월에 10달러선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해 현재는 7-8달러 수준임
 - 이러한 가격 하락은 PC업체의 휴가기간 등 8월까지 반도체가 비수기에 들어가기 때문임

한·일 업체간 64M 시장의 주도권 확보 경쟁

- 한·일 업체를 중심으로 한 64M DRAM의 양산이 본격화되고 있음
 - NEC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64M DRAM의 생산이 확대하고 있음
 - 이것은 16M에서는 더 이상의 수익 보전이 어렵고 64M 시장에서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보임

- 양산 확대로 64M DRAM의 가격도 작년말의 70달러 선에서 큰폭으로 하락해 현재는 40달러 수준으로 떨어졌음

■ 7월 전망

16M 감산
 지속으로 수
 출 증가세는
 계속될 것임

- 7월에도 수출은 전년 동기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16M DRAM 가격은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 휴가 기간으로 비수기이기는 하지만 전년 동기 대비 가격차의 축소로 인해 수출액은 상승할 것임
 - 생산 측면은 여름휴가를 맞아 한국, 일본 업체의 감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반도체 산업 동향>

		5월		1~5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수출	억 달러	14.9	8.9	65.0	-28.0
수입	억 달러	11.7	34.9	52.2	17.3
생산	억 원	9,546.3	3.4	41,621.9	-17.3
내수	억 원	314.5	-30.2	1,818.4	37.6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신광철)

(4) 자동차

■ 동향

6월중 자동차
 수출은 대폭
 증가, 내수는
 침체 지속

- 6월중 국내 자동차 내수는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함. 그러나 수출 증가로 생산 활동은 활발하였음
 - 생산은 파업으로 대폭 줄어든 전년 6월에 비하여 42.6% 증가함
 - 이는 수출 증가뿐 아니라 1996년 6월 생산이 파업으로 대폭 줄었기 때문임
 - 내수는 무이자 할부 판매 등으로 전월보다는 감소세가 다소 수그러든 3.9% 감소로 나타남
 - 수출은 전월에 이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해 4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내수 부진 극복을 위한 업체들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힘입음
 - 수입차 내수 판매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이 지속되면

- 서 전년 동월 대비 33.0% 감소하였음
- 상반기중 생산은 플러스로 반전했으나, 내수 감소폭(-10.8%)은 80년 오일 쇼크 이후 최대치 기록
- 이는 6월중 총판매의 45.4%를 차지한 수출이 대폭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함

■ 7월 전망

수출 위주의
산업 활동 패턴
이어질듯

- 7월에도 자동차 내수의 감소세는 지속되는 가운데 할판 경쟁 등 출혈 경쟁은 가속될 전망이다. 반대로 수출은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생산은 수출 호전 지속으로 증가를 보일 전망이다
- 내수는 업체들의 할부 조건 완화, 중고차 반납 등 신판매 방식의 도입으로 다소 회복이 기대되나 부진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 수출은 업체들의 해외 마케팅 강화, 엔화 강세 등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 수입차 내수 판매도 감소세를 극복하기 위한 수입 업체들의 판촉 노력과 통상 마찰 압력의 영향 등으로 어느정도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감소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1997년 6월 자동차 산업 동향>

(단위: 대)

	6월		1~6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생 산	257,866	42.6	1,426,988	4.1
내 수	129,965	-4.2	729,984	-10.8
수 출	158,040	48.6	647,484	13.2
수입차 판매	726	-33.0	4,707	-5.9

자료: 자동차신문, 1997 7.18일자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윤창호)

(5) 조선

■ 동향

- 6월중 수주는 폭발적 증가세 기록, 생산은 감소세 지속

엔화 강세로
수주 증가세
지속, 생산은
감소세로 반
전

- 6월의 신조선 수주는 전년 동월 대비 297.9% 증가한 168.3만 GT를 기록함
- 지난 연말부터 탱커를 중심으로한 발주 물량 증가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임
- 또, 엔화가 115엔 대로 하락함으로써 일본과의 가격 경쟁력 격차가 올해 초 10% 대 열위에서 2~3% 대 열위로 좁혀진 데 연유함
- 6월 수주량은 5월에 비해서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인데, 이는 우리 조선 업체들의 적극적인 수주 의지에도 기인함
-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43.3% 감소한 61.3만 GT로 나타남
- 이달의 선박 납기 불량이 상대적으로 작았고, 지난해 생산 설비 확장으로 인한 조기 건조 불량이 많았기 때문임

○ 올해 상반기중 수주는 호황 지속, 생산은 감소세

- 신조선 수주는 지난 12월이래 계속 호황세를 유지함
- 선가를 바닥세로 판단한 선주들이 선박들을 조기 발주하고 있기 때문임
- 생산은 두달 연속 감소함으로 인해서 감소세로 돌아섬

■ 7월 전망

발주 물량 증가로 수주는 증가세 지속, 생산도 증가세로 반전 예상

○ 7월중 수주는 증가세 지속, 생산도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 6월 수주분보다는 감소가 예상되지만 전년 동기에 비해 높은 수주 물량 유지
- 그러나, 저가 수주로 인하여 채산성면에서는 여전히 악화가 예상됨
- 2년치 건조 물량이 거의 확보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선별 수주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
- 본격적인 선박 인도 시점 도래로 생산은 증가세로 반전될 전망
- 아울러 생산 설비의 본격 가동으로 생산성 증가도 예상

<1997년 6월 조선 산업 동향>

		6월		1~6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수주	만 GT	168.3	297.9	527.7	177.9
생산	만 GT	61.3	-43.3	324.2	-16.6

자료: 조선공업협회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정희식)

(6) 國內 建設

■ 동향

6월중 환경 시설 등 공공 부문발주 증가, 민간도 주거용 중심으로 활기

- 5월중 건설 수주는 6조 7,10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11.8%증가에 그침
 - 공공 부문은 각종 도로 시설과 부산 지하철 3호선 발주, 관공서 및 학교 시설의 건축이 활기를 띠
 - 민간 부문은 경기 부진 지속으로 토목 부문이 부진했고, 주택 경기 회복에 따라 주거용을 중심으로 회복세
- 6월중 건설 수주는 환경 시설 발주 확대, 분양가 규제 완화로 25% 이상 높은 증가세를 보임
 - 공공 부문은 3조 40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6.1% 증가
 - 철도·교량·항만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과 오폐수 처리 시설 등 환경 관련 시설의 발주로 공공 부문의 높은 증가세
 - 민간 부문은 4조 5,60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24.9% 증가
 - 민간 부문은 분양가 자율화로 지방 주택 부문에서 높은 증가

■ 7월 전망

7월은 경기 회복 기대로 민간 토목 회복, 주거용 건축 부문 활기 지속

- 7월중 공공 부문보다는 경기 회복과 분양가 자율화 실시 등으로 민간 부문에서 발주가 크게 늘어날 전망
 - 공공 부문은 경기 침체에 따라 상반기에 공공 물량을 조기 발주함에 따라 7월 이후 공급 물량 축소
 - 민간 부문은 서울, 수도권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활기, 소형 주택 의무 비율 폐지에 따라 지방 도시 중대형 아파트 신축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민간 토목도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1997년 6월 국내 건설 수주 동향>

(단위: 조 원)

수주	6월		1-6월 누계	
		증가율		증가율
합계	7.6	25.2	39.26	30.4
공공	3.04	26.1	16.0	33.9
민간	4.56	24.9	23.28	28.3

주: 6월은 대한건설협회 추정치,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김선덕)